BA "다저스, WS 우승 가장 유력"

LA 다저스가 올해 드디어 월드시리즈(WS) 우승 0순위로 꼽혔다.

7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미국의 야구전문잡지 '베이스볼 아메리카(BA)' 는 8명의 자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구별, 리그별 및 월드시리즈 예상 우승팀을 5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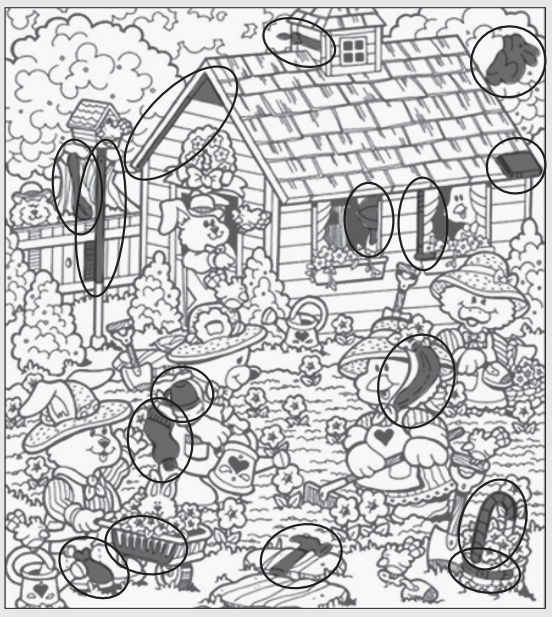
내셔널리그에서는 워싱턴 내셔널스(동부지구), 시카고 컵스(중부지구), 다저스(서부지구)가 지구 우승팀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뉴욕 양키스(동부지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중부지구), 휴스턴 애스트로스(서부지구)가 각각 지구 우승팀 후보로 꼽혔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는 내셔널리그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밀워키 브루어스, 아메리칸리그의 보스턴 레드삭스·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와일드카드로 포스트시즌에 합류할 것으로 점쳤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대목은 역시 월드시리즈 우승팀 예상이었다.

8명의 전문가 중 가장 많은 3명이 다저스가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것으로 내다봤다. 휴스턴과 양키스의 우승을 내다본 전문가는 2명씩이었다. 나머지 1명이 보스턴의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전망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박성현, 세계1위 탈환 … "오랫동안 유지할 것"

박성현(26)이 5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점 6.74점을 획득, 지난 18주 동안 세계 1위를 지킨 에리야 쭈타누깐(6.54점·태국)을 0.2점 차로 제치고 새 여왕에 올랐다.

5일 '스포츠경향' 에 따르면 박성현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것은 2017년, 2018년에 이어 3번째이다. 박성현은 2017년 11월 첫주에 생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으나 불과 1주 만에 펑산산(중국)에게 자리를 뺏겼다. 이후 지난해 8월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두 번째 세계 1위에 올라 10주간 자리를 지키다 10월 28일 에리야 쭈타누깐에게 자리를 내줬다. 박인비(31)가 지난해 7월 에리야 쭈타누깐에게 세계 1위를 내준 이후 7개월 여간 세계골프의 여왕 자리를 두고 쭈타누깐과 박성현이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을 벌여왔다.

박성현은 지난달 서울에서 2019 시즌을 맞는 각오를 밝히는 출정식에서 "쭈타누깐도 저와의 경쟁이 지겨울 것 같다." 며 웃은 뒤 "(둘 사이에) 세계랭킹 1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다시 세계랭킹 1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습했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고 말했다.

이날 필리핀 기업 솔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와의 스폰서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박성현은 "세계 1위에 굉장히 빨리 이 자리에 올랐다." 라면서 "얼떨떨했지만 책임감도 생기면서 남은 시즌을 더 잘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세계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아리야 주타누간(태국)과도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세계 1위에 이제 오른 만큼 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내가 아직 어리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조금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성현이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하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박성현(26)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우즈는 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놀라게 해서 즐거웠다." 며 "세계 1위에 다시 오른 것을 축하한다." 는 글을 올렸다. 우즈가 박성현을 놀라게 했다는 말은 지난달 테일러메이드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났던 때를 의미한다. 우즈의 팬으로도 잘 알려진 박성현은 당시 우즈와 함께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가 우즈를 발견하고 놀란 바 있다.

조던 넘어선 '제임스', 팬들은 '싸늘'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의 우상인 마이클 조던의 득점 기록을 넘어섰지만 팬들의 축하를 받지 못했다.

제임스는 6일 홈에서 열린 덴버와의 경기에서 31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올렸다. 이 경기 전까지 통산 3만2천280점을 기록하고 있던 제임스는 득점을 3만2천311점으로 늘리며 마이클 조던(3만2천292점)을 밀어내고 역대 득점 순위 4위로 올라섰다.

제임스의 앞에는 카림 압둘 자바(3만8,387점), 칼 말론(3만6928점), 코비 브라이언트(3만3,643점)뿐이다.

제임스는 감정이 격해져 벤치에서 눈물까지 쏟았다. 하지만 레이커스가 덴버에 99-115로 패해 4연패에 빠지면서 30승 35패로 서부 콘퍼런스 11위에 그쳐 8팀이 진출하는 플레이오프에서 더 멀어졌다. 8위 LA클리퍼스(37승 29패)와는 6.5경기 차나 된다.

최근 5시즌 연속 포스트시즌에 오르지 못한 레이커스는 올 시즌 4년 총액 1억5,400만 달러를 들여 제임스를 영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여전히 침체에 허덕이면서 제임스가 도마에 올랐다. 공격에만 치중하느라 허술한 수비 약점을 노출시켰다는 비난도 받았다. 끈끈한 수비로도 이름을 날린 조던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제임스 영입에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물 건너가자 레이커스 팬들은 구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루크 월튼 감독을 해고하고, 제임스가 아직 가치가 있을 때 그를 트레이드해야 한다.' , '그의 과대평가된 자아를 갖다 버려야 해!' , '제임스는 LA에서 그의 커리어를 끝낼 수 없게 될 거야!'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ESPN은 "앞서 제임스가 조던의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기록(5,987점)을 넘어서거나 867경기 연속 10점 이상 득점으로 조던의 최다 기록을 깨뜨렸을 때는 소속팀도 잘나가던 때라 온갖 축하가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고 보도했다.